

160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27) 유통 중의 마모퇴색

□ 유통 중의 마모퇴색

해설)

- 재킷을 클리닝한 후, 등 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선상의 퇴색이 발생되어 있음. 이 퇴색의 특징은 가로 방향으로 일직선 상으로 나타나 있고, 양쪽 겨드랑이까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원단가공 시점이 아니고, 제품화된 후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음.



- 해당 부분을 안쪽에서 보면 퇴색은 없지만, 뚜렷하게 접힌 자국을 볼 수 있어서 이 퇴색은 일직선의 퇴색 부분을 경계로 접은 상태로 보관 중에 마찰을 받아 퇴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.
- 가정에서 옷 보관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, 생산·유통 시점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. 클리닝 후에 퇴색이 선명하게 나타난 이유는 클리닝 이전에는 마모되었던 섬유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세정시 이것들이 씻겨나가 선명하게 보이게

된 것이라 할 수 있음.

- 제품의 소재는 마 54 %가 혼방되어 있는 소재로서 일반적으로 마소재는 마찰 견뢰도가 또 보풀에 의해서 백화되기 쉬운 성질이 있음. 본 제품의 겨드랑이 주름진 부분에도 이와 유사한 마찰 퇴색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착용중에 발생한 것이라 추정됨.

♠ 자료출처 : 송중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